

高麗時代の鐵佛

黃壽永

一、總論

鐵材에 의한 佛像造形은 新羅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그 末期인 九세기에 들면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그 後半에 적지 않은 巨作을 現存하는 寺院에 남기고 있다. 新羅下代에 있어서서는 金銅佛 특히 小形의 작품이 많이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는 바 이같은 一尺미만의 小品에 비하여 現存하는 鐵佛은 모두 法堂의 主尊으로서 안치된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들 主尊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新羅下代의 鐵佛들은 그 年代가 九세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봉안된 寺院이 주로 全羅·慶尙兩道에 걸쳐서 건설된 禪宗에 속하는 寺刹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寺院을 들면, 먼저 禪門九山の 으뜸인 智異山 寶相寺(南原)에서 비롯하여 全南長興 寶林寺를 들겠고 開慶 鳳巖寺의 主尊(今亡失), 保寧 聖住寺의 主尊佛(今亡失) 등은 文獻 또는 現地에 전래하는 石造座臺에 의하여 모두 신라 九세기의 鐵佛이었던 사실이 추정되었다. 이같은 既知의 작품 이외에도 근년에 새로 조사된 신라의 큰 鐵佛이 있어 醴泉 寒天寺의 坐像같은 것은 當代의 優作으로서 새로운 注目을 받았다.

이같은 신라말의 現存작품민을 들어 보더라도 신라 下代에 이르러 신라의 영토 全域에서 鐵佛이 유행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江原道 鐵原 到彼岸寺像같은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鐵佛상의 유행에 대해서는 그 原因이 아직도 충분히 규명

되어 있지 않다. 國法에 의한 銅의 使用禁令에 따름인지, 生産條件의 변화에 따름인지, 또는 당대사람들의 鐵佛에 대한 특별한 기호에 따름인지, 또는 당대 祖師들의 中國유학 또는 빈번한 中國과의 海上貿易을 배경삼아 鐵材의 求得이 容易·低價하였던 사실에 따름인지 알 수 없다. 이같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국 조각사에 있어서 九세기에 신라 鐵佛의 유행은 한국불교문화사상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이같은 新羅下代의 鐵佛의 유행은 신라 一代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高麗王朝에 계승되어 고려 초기에 前代를 능가하여 크게 유행한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같은 사실은 물론 前朝以來의 鐵佛유행을 따르던 사실이기는 하나 多幸하게도 오늘에 적지 않은 遺品을 남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今世紀初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移安된 廣州鐵佛①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작품의 양식에서 신라 鐵佛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前代에 비하여 더욱 地方에 이르기까지 유행하여 신라에서 볼 수 없는 三尺内外의 작품이 상당수 전래하고 있는 사실이 근년의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의 鐵佛은 그 前期에서 巨作을 남겼고 그 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조성된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다. 동시에 고려에 있어서는 前期에 있어서의 中國의 宋 이어서 遼·金 그리고 下代에 있어서의 元과의 불교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진밀하였던 사실은 또한 現存하는 작품을 통하여서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中國과의 교류에서 불상양식의 변천을 보인 이외에 고려가 신라의 문화를 계승한 사실에서 가장 현저하게 그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위에서 들은 고려 最大의 작품인 廣州像만 하더라도 기왕에 일본학자의 연대추정이 모두 신라 八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려 하였던 사실에서도 이같은 신라양식의 충실한 계승이 또한 고려 鐵佛양식의 主流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大佛이 신라작품이 아니라 고려의 작품임은 오늘에 이르러 의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방후 우리의 연구에서 그러하다.

둘째로 이들 고려 鐵佛의 양식은 모두 坐像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것

은 아마도 법당의 主尊으로 鑄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石佛立像이 이 시대에 전국각지에서 유행한 사실 또한 아울러 주목할 만하다. 초기의 開泰寺三尊立像이나多數의 磨崖像은 모두 立像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鐵佛에 있어서 菩薩像의 전래를 오늘에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도 보살상의 조성이 그 장식적인 장엄이 따랐던 까닭에 鑄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當代의 鐵像으로서 菩薩像의 전래를 오늘에 볼 수가 없다.

끝으로 고려의 鐵像分佈에서 注目되는 하나의 사실은 江原道 原州나 忠州 등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이 전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세기 초 일본학자에 의한 全國의 古蹟調査에서 먼저 밝혀진 것인데 유록 原州에는 다수의 鐵像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편찬한 《朝鮮古蹟圖譜》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작품이 한 곳에서 전래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日政初에 당시의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景福宮 回廊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진열실 등으로 자리를 바꾸기도 하였다.

고려의 現存作品으로서 그 原位置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는 忠州市의 二例 같은 것도 있으나 대다수가 일찌기 자리를 옮겼으며 또는 寺院에서 전래하다가 六·二五를 前後하여 破壞되기도 하였다. 신라의 鳳巖寺 大佛이 근년에 寺刹의 부주의로 亡失한 사실이나 京畿道 楊平 舍那寺의 鐵像 같은 것이 해방후 아마도 古鐵로 亡失된 사실 등을 들어야 할 것이다. 鐵像은 다른 材料에 비하여 그 溶解點이 높기 때문에 火災에 의하여서도 쉽게 破損되지 않고 보존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奉安寺院이 廢하였던지 또는 戰災로 인하여 露天에 방치되어 온 사례가 허다하였다. 한편 그 사이 이들 고려의 조각작품에 대한 우리의 주목과 관심이 거의 없어서 그 연구가 거의 成果를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보존에 대한 배려도 또한 따르지 못하였던 사실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신라에서 비롯한 우리 나라 鐵像의 발달은 한국조각사에서의 독특한 자리와 높은 比重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오늘에 전래하는 遺作

이나나 그 보존과 鮮明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날에 많은 우리의 傑作이 無心과 放置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사실을 돌이켜 鐵像研究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 小論을 엮어 現存作品을 다시 整理하려는 까닭이 이 같은 곳에 있다.

二、各 論

이 小論에서는 上記한 바와 같이 韓國內의 현존 寺院에서 전래하고 있었던지 또는 今世紀初 이래 廢寺址로부터 국내의 미술관 또는 박물관으로 移動된 고려의 작품을 소개하려 하였다. 따라서 北韓에서 전래하고 있는 작품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開城博物館에 진열되어 있던 鐵佛坐像은 특히 大作으로서 일찌기 경기도 開豐郡 嶺南面 寂照寺址^②에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높이가 五尺三寸의 坐像으로서 石造 蓮花臺座를 具備하고 있는데 當代初期의 佳作이다. 고려의 國都인 開城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大小寺院이 전래하고 있으나 鐵佛의 존재는 따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既知의 작품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 사실은 이들 鐵像은 塗灰 또는 鍍金되어 있어서 外面만으로는 그것이 銅製인지 또는 鐵製인지 곧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에 현존하는 鐵像을 사찰과 박물관으로 兩大別하여서 기록하여 두고자 한다.

(一) 寺刹에서 전래하고 있는 鐵像

① 八公山 桐華寺 如來坐像 / 像 높이 : 二七八 cm (도판 1)

이 像은 오늘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따라서 文化財로의 指定도 아

니 되고 있다. 그러나 이像是 고려철불의 巨軀中의 하나이다. 또 石造臺座를 구비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작은 獨立法堂 안에 안치되어 왔다. 그런데 이 철상에 대하여서는 근세의 寺刹紀行으로 볼 수 있는 愚潭 丁時翰의 《山中日記》에서 다음과 같은 記事를 찾을 수가 있다(戊辰肅宗一四年 一六八八 A.D.).

「大丘 桐華寺：金堂後有一間殿鎔銅鑄像坐像高丈坐石臺上儼然端重：」

이같은 옛 記錄은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다. 同寺 金堂庵에는 東西로 三層石塔이 있는데 그 東北方에 一間法堂(須摩提殿)이 있고 오직 如來坐像 一軀만이 奉安되어 있다. 鍍金한 榻으로 鐵佛임을 가릴 수는 없고 상위한 文獻에도 銅佛로 되어 있으나 마루밑의 臺座의 조사에서 그 全貌를 볼 수가 있었다.

上半身을 直立시키고 石座 위에 結跏趺坐하였는데 위엄을 지닌 相好와 通肩衣의 주름조각이 鮮明하다. 근년의 鍍金에서 古態를 잃었으나 高麗初의 작품으로서 石臺를 지니고 있어 原形을 전하고 있다.

② 永川仙源洞坐像③ / 보물 五一三호 · 높이 一一五 cm 慶北永川郡臨阜面仙源洞

불안 당초의 사원은 알 수 없다. 나발의 양식, 우견편단의 범의와 그 주름의 솜씨, 오른손의 觸地印 등 신라 이래의 여래상의 전통을 잘 이어 받고 있다. 그러나 身部の 경직됨과 衣文의 형식화가 보이고 있다. 초기 작품중에서도 보존이 양호한 작품이다.

③ 平澤 萬奇寺如來坐像④ / 보물 五六七호 · 높이 一四三 cm

근년에 새로 주목된 철상으로서 身部등이 보수되었고 鍍金도 새로 이루어졌다. 右肩偏袒, 觸地印의 신라 이래의 여래상의 通式을 잘 보이고 있다. 法衣의 주름이 左腕에서 平行으로 주름을 잡았다. 相好의 양식은

偏平한 편인데 또한 後補의 흔적이 보인다.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어서 새로 지정이 되었다.

④ 南原 禪院寺如來坐像⑤ / 보물 四二二호 · 높이 一一五 cm

이 철상 또한 근년에 이르러 새로 주목되었다. 비교적 坐高가 낮은 작품으로서 전래의 경위 또한 분명하지는 못하다. 법의가 가슴 앞에서 V자형을 이루는 通肩衣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兩腕을 흐르는 주름은 무릎의 그것과 더불어 다소 도식화되어서 鑄造年代가 내려오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두 손은 근년에 후보된 것으로 보인다.

⑤ 忠州 丹湖寺如來坐像⑥ / 보물 五一二호 · 높이 一一三〇 cm

충주시내에는 옛부터 철불좌상 二軀가 전래하고 있어서 서로 樣式은 같이 하고 있다. 고려 철상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兩眼의 양식이 특이하다. 通肩衣의 주름은 좌우대칭의 수벌을 따르고 있으며 兩足 사이의 부채꼴 주름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두 손은 指端이 損傷되었으나 他例와 같이 別鑄되어 插入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철상과도 다른 얼굴의 표정은 또한 고려 철불의 특색이다.

⑥ 忠州 大圓寺如來坐像⑦ / 보물 九八호 · 높이 九八 cm

기왕에는 「忠州鐵佛坐像」이란 이름으로 노천에서 전하였는데 오늘날은 새로 마련된 대원사의 경내에 있다. 상기한 단호사좌상과 많이 닮았는데 그보다 약간 작은 편일 뿐 다른 양식은 거의 동일하다. 일찍부터 알려져서 고려 철불의 대표작으로 삼아왔다. 두 손은 잃었으나 다른 파손이 없다. 연대는 단호사상과 같이 고려중기의 작으로 추정된다.

⑦ 長谷寺鐵佛坐像⑧ / 보물 一七四호 · 높이 六一 cm

이 좌상은 고려 철상 가운데서도 小像에 속한다. 본래의 좌대를 잃고 현재 석등대석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본래는 연화대좌가 따로 있었던 듯

하다(파편이 남아 있다)。높은 육계, 아담한 상호 그리고 正方形의 身部와 넓은 兩足を 보이는데 두 손은 智拳印을 맺고 있다。법의는 右肩 偏袒인데 주름은 매우 약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철불은 다른 또 하나의 국보상과 더불어 新羅作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鑄造奉安의 實年代는 一〇세기라도 고려에 들어서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이같이 연대가 신라와 매우 접근되고 있는 까닭으로 그 양식에는 신라하대의 것을 많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 장곡사의 위치와 그 占定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다른 石造物 또는 이法堂 안에서 전래하던 絞樣塚 등을 종합하여서 이곳 철상의 연대를 고려 초로 잡은 것이 사실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한다。다만 그 주조나 석조대의 제작은 신라하대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추정하여도 좋을 것이다。木造光背가 있어 채색되었는데 그 연대는 高古하다。

⑧ 長谷寺鐵造藥師如來坐像⁹⁾ / 국보 五八호 · 총높이 一三三二cm 불상높이 一〇三cm

충남 靑陽郡 大峙面 長谷里

이 불상은 장곡사를 새로 주목케 한 작품이 되었다。日政 때 일인학자에 의하여 深山幽谷에서 이같은 신라의 걸작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말할 것도 없이 이 철불은 우수한 方形臺座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대좌의 크기에 비하여 불상은 매우 작다고 하겠다。

이 불상은 ⑦의 비로사나불과 거의 같은 양식이나 서로 手印만을 달리고 있다。그러나 이들 두 철불좌상은 同時作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석조대좌 또한 같은 연대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필자는 이곳 장곡사의 창건을 고려초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들 불상 또한 창건과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대좌가 매우 精巧하고 유례가 드문 優品이라 하더라도 그 方形座임과 上下의 蓮꽃紋樣는 그대로 고려초의 양식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불상은 모두 胡紛을 全身에 바

르고 있는데 그 一部가 탈락되고 오염되어 있기도 하다。양식상 신라의 솜씨를 잘 보이고 있으나 고려초에 이르러 주조된 것으로 추정하려 한다。

⑨ 忠州 白雲庵如來坐像 / 地方有形文化財 제二一호。

最近年에 새로 조사된 것으로서 忠州市 安林洞의 小庵에 안치되어 있다。螺髮, 右肩偏袒, 降魔手印의 通式을 지니고 높이가 八九cm이다。

⑩ 尙州 南長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경북 상주군 內西面 南長里에 자리잡은 古刹인 南長寺에서 전래하고 있다。큰 나발이 있고 相好와 通肩衣의 주름은 온화하고 유려하다。두 손으로 智拳印을 보이고 있는데 손이 반대로 左手로 右脂를 잡고 있어 光州 證心寺像과 同一하다。높이 一三三三cm, 시대는 一〇세기로 추정되었다。《韓國佛像三百選》(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 一九八二年)에 그 도판이 실려 있다。

⑪ 光州 證心寺毘盧舍那佛坐像 / 보물 一三二一호。

이 철상은 일찌기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되어서 널리 알려져 왔다。그리하여 신라의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다。그러나 이상 또한 연대를 내려서 고려의 작품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높이 九〇cm 밖에 아니 되는 작품인데 미소를 면상호와 通肩衣, 넓은 두 발에 표시된 衣紋에서 신라 이래의 오랜 양식을 전하고 있으나 형식화의 모습을 보인다。일찌기 光山郡에 있던 것을 一九三四년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두 손이 智拳印을 보이는데 左手를 잡고 있는 양식이다。

(二) 博物館 등에 진열되어 있는 鐵像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적지않은 고려의 鐵造如來像이 진열되어 있다。모

두 日政初년부터 全國各地의 廢寺址에서 옮긴 것인데 그중多數는 日政 景福宮回廊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당시의 박물관 本館의 건물에 매우 협소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一九七四년에 현재의 新館이 건립되고 그중에 佛像彫刻室이 설치됨에 따라서 기왕의 勤政殿 回廊에 진열되었던 것을 박물관 陳列室로 상당수 옮기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그에 앞서서 一九七〇년초에 李王家美術館이 국립박물관에 합쳐짐에 따라서 그곳 德壽宮美術館에 진열되었던 廣州鐵像을 비롯하여 數軀의 철상이 모두 景福宮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이같이 많은 철상이 日政初에 박물관 등에 入手되는 경위는 모두 古物을 賣買하던 日人들이 주로 寺址로부터 이들을 함부로 搬出하여 박물관 등에 賣却하였기 때문이다. 日政初期 우리 文化財에 대한 加害는 비단 地下墳墓에서 뿐 아니라 地表의 塔像을 搬出함으로써 損傷과 混亂을 더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搬出事實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 重要作品에 대하여서는 그 소속사찰이나 그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鐵像에 부속되었던 臺座나 光背같은 작품이 현지에 放棄됨으로써 오늘의 해명을 어렵게 만든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다음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그밖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의 鐵像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廣州東部面下司倉里原在 如來坐像^㉑ / 보물 제 三三二二호. (도판 2)

日政初 上記所在 廢寺址에서 李王家美術館으로 옮겼고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기왕에는 春宮里로 표시되어 왔으나 해방후의 조사에서 下司倉里의 寺址임이 확인되었고 그 附近의 民家에는 오늘날도 石造臺座의 破片들이 散亂되어 있는 것이 목격된다. 口傳에 따르면 鐵製의 光背도 있었으나 서울로 운반될 때 日人에 의하여 破碎되었다고 한다(故全整弼氏談).

이 좌상은 오랫동안 露天에 매물되어 있어 兩手와 무릎一部가 破損되었던 것을 補修하였다. 右肩偏袒이며 降魔觸地印을 結하고 있어 경주

吐含山大佛과 그 樣式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鐵造大佛에 대하여서는 日政期를 통하여 新羅作品說이 주장되었었다. 日人學者 關野貞博士는 이 像을 「廣州釋迦坐像」이라 하여 新羅統一時代に 넣었고 中吉功씨는 「新羅下代の 初頭 곧 八세기 말엽에서 九세기 초엽의 제작으로 比定」하고 있다(《新羅·高麗の佛像》一七四頁).

이 같은 年代觀에 대하여 해방후 異論을 낸 것은 필자가 廣州의 寺址 調査를 마친 다음이었다. 그리하여 고려초기의 鑄成으로 주장되었고 그에 대한 더욱 자세한 現地調査가 앞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大佛이 신라의 石像과 對比되는 만큼 이 作品은 前代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고려가 건국한 직후 金石의 巨像을 각지에 조성하던 추세에 따르면 작품으로서 鐵佛로서는 고려 제일의 大作이다. 앞으로 石臺座의 復元考察과 寺址의 조사는 이 大佛의 原狀을 밝혀 줄 것이다. 높이 二八八cm. 一九一二年(明治四四年)二月二〇日 日人 高田久吾로부터 八五〇원으로 購入(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德壽宮美術館二七四八番).

② 忠南瑞山 普願寺鐵佛坐像(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됨)
(도판 3)

이 좌상은 一九一八年 四月二〇일자로 瑞山郡 雲山面所在 寺址로부터 搬出되었는데 年代는 九세기라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카드번호 제五一九一)에 보인다. 搬出場所에서 미루어 그곳 普願寺址로 한 때 推定되었으나 ③의 大佛이 이 寺址의 것이 거의 틀림없다면 이 불상의 出處는 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좌상은 신라여래상의 양식을 계승하여 右肩偏袒의 法衣와 兩手が 缺하였으나 降魔觸地의 手印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素髮인데 白毫孔이 크게 남아있으며 풍만한 相好와 넓은 두어깨와 定安된 姿勢 등 고려초의 優作을 삼을 수 있겠다. 높이 一·五m로서 신라 八·九세기의 작품이라는 發說이 있어 歐美에 海外展示되었었다. 그리하여 海外展示에서 신라의 作으로 새로운 注目을 받았는데 그같은 계기는 展示品目을

선정한 外人學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八·九세기의 신라의 傑作이 되기도 하였다. 그 作品評價는 且置하더라도 그 年代推定은 分明히 고려 初期에 두어야 하겠다. ⑩ 그런데 外人에 의한 소홀한 發說이 그대로 通用하는 곳에 우리의 虛點이 內在하고 있다. 廣州大佛의 경우와 같이 또 다시 外人의 눈을 빌어 우리의 작품을 볼 수는 없다. 두 손이 없고 頭部 一部에 손상이 있으나 彫刻이나 鑄造에 있어 우수하며 숙련된 작품이다. 풍만한 상호와 당당한 체구 유려한 의문 등에서 그 年代가 추정되었고 중국의 唐代作品과도 對比된 것으로 짐작되나 이같은 양식상이 고려초에 능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우리의 조각 전통과 그 기능의 전승이 또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外人의 고찰에는 이같은 民族美術의 전통이나 이 作品을 評價하기에 필요한 몇몇 基本要件에 대한 留意가 缺如하고 있다. 우리 美術에 대하여 白紙 또는 서툰은 사람이 자기의 眼目만을 내세워 함부로 發說하고 그에 대하여 無批判的으로 또는 出品작품의 기초조사나 討論없이 이에 盲從하여 왔던 것은 用意的 不足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③ 鐵造如來坐像(景福宮 勤政殿回廊소재) (도판 4)

현재 경북궁 근정전 회랑에 진열되어 있는 巨像이다. 右肩偏袒의 法衣를 보이며 두 손은 모두 잃었으나 원래 降魔印을 결하였던 듯하다. 발견된 장소나 이곳으로 옮긴 시기 등에 대하여 박물관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박물관 陳列品圖鑑(제 2집)에 수록되어 있어 一九一八年三月에 忠南 瑞山郡 雲山面 普願寺址에서 옮긴 것이라 하였다. 높이 약 二六三cm.

④ 鐵佛坐像(경복궁 근정전 회랑소재) (도판 5)

같은 근정전 서쪽 회랑에 있다. 右肩偏袒이며 降魔印을 지니고 있다. 두 손과 右膝에 보수된 흔적이 있다. 원래 장소 등은 알 수가 없다. 높이 九四·五cm.

⑤ 鐵造阿彌陀如來坐像(근정전 회랑소재) (도판 6)

원래 원주군 본부면에서 옮겨진 것으로 경북궁에 진열되어 있다. 通肩衣로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禪定印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파손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높이 一一一cm.

⑥ 鐵造如來坐像(국립중앙박물관진열) (도판 7)

높이 九四cm. 膝幅 八一cm.
方形的 石造蓮花文臺座를 구비하고 있다. 螺髮이며 右肩偏袒인데 手印은 降魔觸地인 듯하다. 비교적 小像이나 단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一九一六년 四月에 수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搬出경위는 알 수 없다.

⑦ 鐵造釋迦如來像(국립중앙박물관진열)

이像 또한 一九一六년에 購入되어 그 사이 경북궁 근정전 회랑에 있었던 것을 현재 옮겨 진열하고 있다. 다른 좌상과 같이 右肩偏袒이며 降魔印을 보이고 있다. 두 손의 손가락은 後補. 《朝鮮古蹟圖譜》五冊의 도판번호 一九九九에 실려 있으며 原所在은 原州郡 本部面 邑玉坪이다. 높이 三尺一寸.

⑧ 鐵造如來坐像(국립중앙박물관진열) (도판 8)

他像에 비하여 上半身이 길고 直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螺髮·右肩偏袒이며 兩手를 缺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따르면 경기도 抱川郡 二東面 白雲洞에서 搬出되어 一九二五년 一二월에 尹萬明으로부터 購入되었다. 그후 근정전 회랑에 있다가 一九七二년 현재의 신관으로 옮겼다. 衣文이 비교적 정돈되어 있다. 높이 一三二·三cm.

⑨ 鐵製毘盧舍那坐像(국립중앙박물관진열) (도판 9)

원래 李王家美術館에서 一九一〇년 一二월 一四일자로 日本人 高田久

吾로부터 三〇〇원으로 購入한 것이다. 유물카드(德, 二六五三)에 따르면 「高一・二、一cm 空胴式坐像、兩耳先이 缺損되고 곳곳에 鑄切이 있다」고 하였다. 《朝鮮古蹟圖譜》五冊 圖版番號 二二〇三으로 실려 있다. 이 책에는 따로 二軀의 「鐵造佛坐像」(圖版 二〇〇二・二〇〇四)이 보이고 있어 李王家博物館藏이라 하였다.

像은 螺髮에 智拳印을 하였고 法衣는 右肩偏袒。

⑩ 佛頭二件(국립중앙박물관지열) (도판 10-①②)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지열실에는 鐵造佛頭 二件이 있는데 해방후 寺址에서 新收品으로 入手된 것이다.

가) 신 一・六九二. 出所未詳, 一九六九年 一월 二〇일 宋秉鎬로부터 六〇만원으로 구입. 高四三cm. 如來佛頭로 두점게 놓이 슬어 있다.

나) 신 一・五三九. 一九六二年 一〇월 二三日 黃圭董으로부터 八二、〇〇〇원으로 구입. 高三八・五cm 고려초기양식으로 보이는 如來像으로 螺髮이 刻明하고 白毫孔이 남아 있으며 鐵鏽가 全面에 나타나 있다.

⑪ 湖巖美術館所藏 如來坐像¹²⁾

螺髮이며 通肩衣를 하였고 結跏趺坐하였는데 兩手는 缺失되었고. 小品인데 전래장소 등을 알 수가 없다.

「이 鐵佛은 고려초기 것중에 秀作에 속하는 것으로 간잔한 미소를 띠고 잘 다듬어진 相好와 고운 어깨線, 균형이 잘 잡힌 체구가 돋보인다(中略) 降魔觸地印을 한 손은 따로 만들어 끼운 듯하다.」

(三) 亡失品目・其他

① 法龍寺如來坐像

安東市內에서 전래하여 온 一例로서 《朝鮮古蹟圖譜》五冊의 圖版 二〇

〇〇에 그 사진이 실려 있다. 螺髮이며 右肩偏袒이고 右手는 무릎 위에 들었고 左手는 第一과 第三指를 맞대고 무릎 위에 놓였다. 六・二五戰災로 亡失되었다고 한다.

② 楊平 舍那寺鐵造如來坐像

舍那寺는 一九〇七年 義兵亂에 罹災하였는데 이 鐵像 또한 破損되고 그후 小屋에 안치되어 왔다. 그러나 다시 六・二五後 亡失되었다고 들린다. 一九一六년의 《古蹟調査報告書》에는 그 사진 一枚가 있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坐高約三尺六寸……製作優秀하고 面相端正 衣褶鮮明하다. 朝鮮鐵佛中優秀한 것이다. 時代는 新羅 또는 高麗初의 作일 것이다. ……이 같이 優秀한 佛像은 官府에서 特別 修理保護있기를 切望한다.」

螺髮, 右肩偏袒, 右手腕이 斷切되었으나 降魔手印으로 보인다. 相好는 扁平溫和하며 衣文이 流麗하다.

③ 美國와싱턴博物館陳列 鐵造藥師如來坐像

石造臺座가 있는 고려의 作品으로 원래 江原道 原州郡 本部面 邑玉坪에 있던 것을 一九一六년 서울 景福宮으로 옮겼고 그후 다시 一九六一년 一二월 美國 스미스소니언博物館에 貸與되었다. 通肩衣를 보이고 右手를 들어 藥盆을 잡고 있으며 左手는 내려 左膝 위에 두었다. 높이 一・一m의 비교적 小像이나 端正한 자세와 정돈된 衣文 등 當代의 佳作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번호 本 一九七〇이나 《朝鮮古蹟圖譜》七冊 P 八八九 도판 三二〇〇 참조.

[附記]

이밖에도 江原道 三陟郡 三和里에 위치한 三和寺에 下半身을 상실했으나 顔面의 조각은 우수한 高麗鐵佛(秦弘燮 「三和寺의 塔像」 《考古美術》 一二九・一三〇合輯 一九七六)의 例와 全北 任實郡 新平面 龍岩里에 所在한 寺址에 전하는 高麗鐵佛의 資料(未調査)가 있다 함으로 여기에 附記한다.



삼도 1. 八公山 桐華寺 如來坐像



삼도 2 光州 車部面 下司倉里 原在 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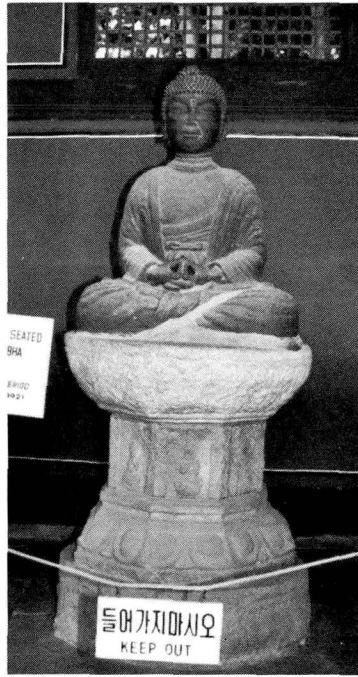
삼도 3 忠南 瑞山 普願寺址 鐵佛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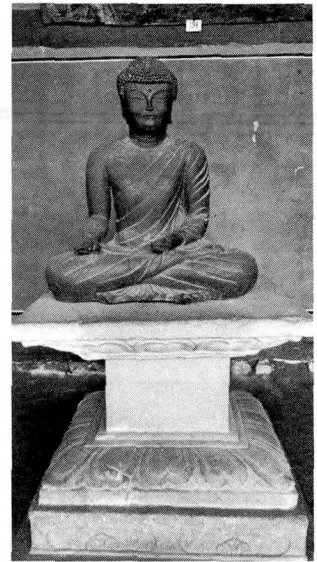
삼도 4. 鐵造如來坐像



삼도 5. 鐵造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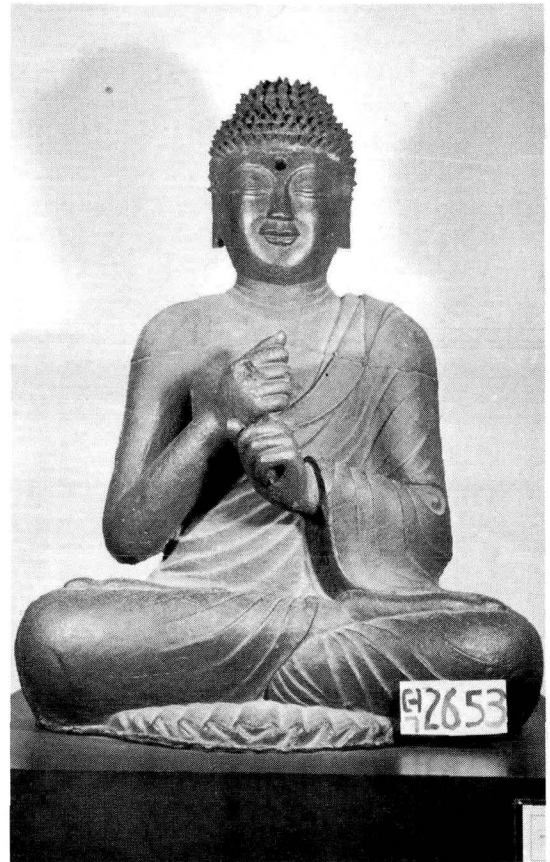
삼도 6. 鐵造阿彌陀 如來坐像



삼도 7. 鐵造如來坐像



삼도 8. 鐵造如來坐像



삼도 9. 鐵製毘盧舍那坐像



삼도10-① 신-1692. 佛頭



삼도10-② 신-539 佛頭

參考文獻

-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考古美術》一五四·一五五. 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八二, 六.
- 黃壽永外, 《韓國佛像三百選》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一九七九, 三.
-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佛像篇.
- 《朝鮮古蹟圖譜》제五책·제七책.

〔註〕

- ① (一)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第三〇圖鐵製釋迦如來(新羅時代). 「新羅作. 로서 石窟庵石佛이외에 이같이 우수한 大作品은 따로 그 類例가 없을 것이다」.
- (二) 《國寶》제二책, 藝耕産業社, 一九八四年간, 도판 八二. 보물지정 三三二호.
- ② (一) 高裕變新生은 이 鐵佛의 寂照寺說에 대하여 疑問을 提出하고 후시 瑞雲寺(五冠山龍岩寺)像이 아닐까 하였다. 또 그 연대에 대하여서도 「形式이 新羅에 오히려 屬할 것이며 前述한 推定(瑞雲寺說)이 可하다 면 歷史的으로도 新羅의 作이라 할 것이 分明한 듯하다. 다시 推考가 있 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作品으로 그 優秀함에 感歎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開城博物館陳列品解說) 一五. 本館內鐵製釋迦如來坐像, 遺著《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二一五頁).
- (二) 《朝鮮古蹟圖譜》七册. 도판 三一九八 참조.
- ③ 《國寶》제二책, 도판 九〇, 서울藝耕産業社, 一九八四年간.
- ④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九一
- ⑤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八八
- ⑥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八五
- ⑦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八七
- ⑧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七九
- ⑨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七六
- ⑩ 上記《國寶》제二책 道판 八二
- ⑪ 《五〇〇〇 YEARS OF KOREAN ART》 May 1' 1979—June 14. 一九八二,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道판 九二 및 동해설에는 통일신라시대(八세기말~九세기초)로 원대 추정하고 있다.
- ⑫ 湖岩美術館刊行《韓國人體彫刻展》도록(一九八四, 四)에 도판이 있음. 고려一〇세기 高八四·五cm.